

2022-2학기 학습성공스토리 공모 에세이 참가 신청서

※ 휴면명조 11p, 줄 간격 160%, 전체 2페이지 이상 (2,500자 내외)

인적 사항				
소 속	IT 융합대학/전자공학과	학 번		비고 외국인, 편입생, 만학도, 장애학생 등 경우만 작성
이 름	이**	연락처		

제 목	단 하나의 교양과목으로 인해 달라진 나의 '안목'		
교과목	영미 문학의 이해	담당 교수명	장 금 희
구 분	교양		

2022년 9월 공학도들은 꼭 들어야 하는 <영미 문학의 이해>라는 교양과목을 나는 신청하여야 했다. 왜냐하면 교양 필수이기 때문이다. '전공과목도 이해하기 힘든데 인문학 강의를 들어야 한다니!' 귀찮음과 피로감이 몰려왔다. 하지만 그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익숙한 얼굴들이 삼삼오오 모여 인문학적 관점을 내뱉고 있었다. 그걸 보고 나는 '아 인문학을 공부하면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 순간 피로감이 흥미로 바뀌게 되었다.

첫 수업이 있는 아침, 나는 설렘과 피곤함을 동시에 느끼며 강의실 문을 열었다. 자리에 앉아있으니, 어느새 시곗바늘이 수업 시간을 가리켰다. 따그닥 따그닥 구두 소리와 함께 교수님이 들어오신다. 교수님은 <영미 문학의 이해>를 공학도들이 들으면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믿지 않았다. '아니 이 한 과목만 듣고 안목까지 달라진다고?' 나는 그렇게 피식 웃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됐다. 이 수업은 교재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 과목에 대한 배경지식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단지 존재하는 것은 교수님의 '말' 뿐이었다. '셰익스피어(Shakespeare)'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 '빅토리아 여왕(Queen Victoria)' 평소 뉴스나 유튜브 영상에서나 듣던 인물들이 나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작가와 작품을 단순히 시대 순서대로 설명하면 지루할 내용들을 교수님은 자기 경험에 빚대어 설명해주신다. "영국에는 엘리자베스 1세 때 만들어진 글로브 극장(Globe Theatre)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제가 유학할 때도 많은 영국인이 그곳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글로브 극장은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상연해 유명해졌고, 아직도 영국인들의 마음속에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혼'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영국에 20년 가까이 유학했다. 그래서 영국인들의 음식, 문화, 사회적 풍토에 '박학다식' 하였다. 나는 평소 영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이처럼 경험에서 오는 이야기는 나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왔다. 시험공부를 준비하는데 외울 것이 너무 많아 막막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였지만 그래도 공부할 것이 마치 사막의 모래알갱이 같았다. 그때 나는 한 가지 경험이 떠올랐다. 3년 동안 나는 휴학하고 미국에 있었는데, 많은 아이비리그(Ivy League) 출신들 혹은 미국의 유명 대학교 출신들 친구들이 일할 때 필요한 것만 암기하고, 나머지는 전체 흐름을 파악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래 외우지 말고 전체 흐름을 파악하자' 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나는 관련 자료들을 검색하였다. 유튜브, 구글 심지어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까지. 그렇게 허둥지둥 공부하는데 갑자기 몸이 전율이 왔

다. ‘왜 모든 흐름이 파악되고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거지?’ 그렇게 나는 고대, 중세, 엘리자베스, 오거스틴, 왕정복고까지 시간에 흐름대로 머릿속에 들어왔다. 심지어 교수님이 알려주지 않은 내용까지 너무 재미있어서 공부하였다.

그렇게 시험시간이 다가왔다. 긴장의 숨소리가 이리저리 내 몸을 휘감았다. 시험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모든 시험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었다. 그것도 시간의 순서대로 문제가 나왔다. 나의 공부 방법이 정확히 맞은 것이다. 나는 시험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공부했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답을 적었다. 단지 부족한 점은 시험 문제에 작가와 작품을 3개 이상 적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공부하지 못했다. 시험이 끝난 후 나는 두가지를 깨달았다. 첫째, 수업 시간에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강의를 들으면 이해하기 쉽다. 둘째, 전체 흐름을 파악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암기하면, 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중간고사를 끝마친 후 나는 내가 계획했던 방법을 고스란히 기말고사에 옮겼다. 이 과목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교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게 어떤 것인지, 모든 파악이 끝나자 나는 이 과목이 너무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 재미있어지니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박혔다. 그 결과 나는 중간고사 때와 달리 기말고사에서는 모든 답을 완벽하게 적어 냈고, 최종 성적도 A 플러스를 받았다.

나는 전공 공부를 할 때도 같은 방법을 이용했다 하지만 나는 조금 응용했다. 바로 이 과목에서 필요한 기초 수학 공식을 ‘예습’ 하는 것이다. “회로 이론” “전기자기학” “공학수학” 등 나의 전공과목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을 이용한다. 즉 수업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 공식 등을 사전에 공부하는 것은 수업 시간에 나의 이해를 도왔다. 예습하고, 배운 것을 시간에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암기하는 것은 전보다 완벽한 학습 효율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영미 문학의 이해> 과목을 듣기 전까지, 모든 시험공부를 할 때 전부 외웠다. 당연히 시험 결과는 좋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이 끝나고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교수님의 수업방식과 나의 경험이 더해져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중요한 부분만 외워서 공부하였다. 이 공부법은 자연스러운 이해와 암기를 동반했고, 수업을 수강한 이후 시간이 꽤 흘렀지만, 내 머릿속에 배운 내용이 생생하게 존재한다. 교수님이 오리엔테이션 때 언급하신 ‘인문학을 공부하면 안목이 달라진다’ 라는 말씀은 ‘효율적인 공부 방법’ 을 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나는 앞으로 시험공부를 할 때마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얼마 남지 않은 학교생활에 ‘유종의 미’ 를 거둘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당선작 및 응모작의 저작권 등 권한은 조선대학 CTL로 귀속되며, 제2차 저작물로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및 학내 홍보물에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해당란에)

※ 비동의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2022학년도 2학기 학습성공스토리 공모전 에세이 부문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2년 01월 10일

제출자: _____ 이** _____ (이**)

조선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귀중